

세계관 운동

손봉호 (대표주관)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하고 있다. 도무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무엇이며 왜 해야 하는가?

'기독교적 세계관'은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카이퍼(A. Kuyper)나 도여베르트(H. Dooyeweerd)도 기독교 세계관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순수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졌다 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도 모두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세계관에 어느 정도 감염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세계관은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이상이며 목표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적 세계관에 어긋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적 세계관 운동은 주로 우리가 속한 문화와 그것에 감염되어 있는 우리 자신의 비기독교적 세계관을 발견하고 비판함으로써 조금씩 성경적 세계관에 다가가려 하는 몸부림이다. 일종의 성화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 비판에는 이제까지 비기독교적 세계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지 못하게 한 이원론적 신학도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고정 칼럼과 여러 다른 글이나 강연에서 나는 한국의 전형적 세계관이 철두철미 차세중심적(此世中心的)이라고 주장해 왔다. 내세도,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이 세상이 전부라고 보는 세계관이란 것이다.

따라서 삶의 모든 의미와 목적은 이 세상에서 이룩해야 하는데 가장 큰 성취가 바로 효경(孝經)이 효도의 극치라고 하는 입신양명(立身揚名), 즉 출세해서 이름을 날리는 것이라 주장했다. 우리의 속마음을 살피는 경찰(police within)과 내세의 인과보응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거부감이 약하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며, 외모나 옷 같은 것의 겉치레에 큰 관심을 기울이는 문화를 만들었다. 출세해서 이름을 날리려 하면 1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경쟁심이 가장 강한 사회가 이룩되었다. 그런 경쟁심은 세계 역사에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많은 분야에서 엄청난 발전을 가능하게 했으나 1등 콤플렉스와 상대적 박탈감이 불가피하게 동반되어 삶의 만족도가 OECD에서 거의 꼴찌로 떨어지게 되었다.

한 문화의 세계관은 그 사회의 지배적인 종교에 의하여 주로 결정된다. 어떤 비판이나 의심을 허용하지 않고 무조건적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종교를 근본적으로 바꾼 이집트나 그리스도를 보면 종교가 세계관에 얼마나 결정적인가를 알 수 있다. 지금의 이집트나 그리스에는 고대 이집트 종교나 고대 그리스 문명의 세계관은 자취도 찾아볼 수 없다. 과거의 종교가 송두리째 바뀌었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세계관을 결정하는 것은 무속신앙이다. 우리 민족이 시베리아에서 한반도로 들어올 때 가지고 들어온 종교였다 하는데 오늘날까지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아직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국의 무속종교는 아마도 오늘날 살아 있는 원시종교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 아닐까 한다. 그 후에 한반도에 들어 온 불교, 유교, 기독교는 그 무속신앙을 근본적으로 대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에 감염되고 말았다. 무속신앙은 절대 신이나 내세 같은 것에 관심이 없다. 오직 이 땅에서 운수대통하여 잘 살기만 바란다. 유교도 신이나 내세에 관심이 없다는 점에서 무속신앙과 비슷하기 때문에 불교나 기독교보다 한국의 차세중심적 세계관 형성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차세중심적 세계관은 누가 봐도 기독교적 세계관과 다르고 그 자체로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불행하게도 한국 기독교는 이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따라서 극복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상당할 정도로 무속화 되고 말았다. 세상과 비슷해졌으므로 한국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고 비참할 정도로 부패하고 말았다. 정직한

그리스도인도 모두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세계관에 어느 정도 감염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세계관은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이상이며 목표다.

지 못해서 사회의 신뢰를 상실하고 교회끼리, 목회자끼리도 경쟁하느라 하나님보다 자기 교회를 우선시하는 '우리교회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으나 그곳의 원주민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긴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나님이 가나안 원주민을 모조리 죽이거나 쫓아내라고 명령하신 것을 보면 비성경적 세계관에 감염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가를 잘 보여준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주로 지식인들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자신과 자신이 속한 문화를 성경의 가르침과 비교하고 비판적으로 반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할 정도의 지식과 지적능력이 요구된다. 기독교적 세계관 운동이 '학술동역회'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은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다.



손봉호 본지 대표주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이며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섬기고 있다.